

버클리대 아사미문고본 治腫方에 대하여

박상영, 이정화, 권오민, 안상우, 한창현,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The Discovery of woodcut 『ChiJongBang』 and its significance

Park Sang Young, Lee Jung Hwa, Kwon Oh min, Ahn Sang Young, Han Chang Hyun, Ahn Sang 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re are two transcriptions of 『ChiJongBang』 in Korea at the moment. The first is the Jangseo-gak library transcription(K3-380). The title is “ChiJongBang(治腫方)” and it starts with the contents of 「ChiJongBang(治腫方)」, followed by 「HoeChunYoGyeol(回春要訣)」, 「NolnSeopYangBang(老人攝養方)」, 「SoABang(小兒方)」. 「ChiJongBang(治腫方)」 does not even take up a large portion of the book. The other transcription is 「ChiJongBang(治腫方)」 in Geoil's 『Uihui(宜彙)」, which was presented into the world in 1871(the 8th year of King Go-jong) by GeumRiSanIn(錦里山人). The contents of the two transcriptions are the same, and both are left by ImEonGuk. The latter part is identical to the contents of 『ChimGuGyeongHeomBang』. It was common for a medical book to have additional useful information attached in the end, so it was thought that somebody added a part of 『ChimGuGyeongHeomBang』 at the end of 『ChiJongBiBang』. But the discovery of a woodcut 『ChiJongBang』 in Korean annotation confirmed that the making of this book was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fact that abscess was a big part of healthcare around the ImJinWaeRan(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period.

Key Words : ChiJongBang, ChimGuGyeongHeomBang, woodcut, ImEonGuk

I. 서론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가운데에서도 침술에 유난히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鍼灸經驗方』을 제외한 침구 관련 저술에 대한 연구나 언급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다행히 최근 몇 사이에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治腫指南』의 朝鮮槧本 뿐 아니라 중국 필사본이 발견되는가 하면, 『治腫指南』 『治腫秘方』 등 任彦國과 관련된 주요 서적에 대한 연구¹⁾ 및 번역²⁾이 이루어지면서 그 면모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에 덧붙여 최근 버클리대학에서 발굴된 아사미문고본 『治腫方』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는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의 소장 자료로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협조를 통해 입수하였음을 밝힌다. 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해외소장 한국고전적 자료의 해제 및 디지털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이래 버클리대학 소장 한국 고전적 자료를 디지털 원문이미지로 구축하고 주요자료에 대해 해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1) 이규근, 「조선중기 治腫術의 발달-『治腫方』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6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서지연, 『任彦國의 治腫醫學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8.

방성혜, 『外治法의 현대적 응용을 위한 고대 외과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8.

박상영·이선아·권오민·안상우, 「『治腫秘方』 연구 - ‘遺方’의 성격과 의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4권 1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4.

박상영·안상우, 「『治腫指南』 연구」, 『민족문화』 제32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12.

안상우·김남일·차웅석·오준호·권오민·박상영,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증보판)』,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박상영·권오민·안상우·한창현·안상우, 『任彦國의 『治腫方』 翻譯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2권 4호,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9.

2) 안상우·박상영 譯, 『국역 치중지남·치중비방』,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접수 ▶ 2010년 11월 20일 수정 ▶ 2010년 12월 10일 채택 ▶ 2010년 12월 19일
 교신처 ▶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8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Tel: 042-868-9442 E-mail : answer@kiom.re.kr

II. 본론

1. 아사미문고본 『治腫方』의 구성 및 체제

본서의 표제는 “治腫方”이라 되어 있고, 내용은 서문으로 시작되며, 서문을 제외한 내용 전체에 대해 언해를 달아놓았다. 목차를 적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治腫方序」, 「火疔」, 「石疔」, 「水疔」, 「麻疔」, 「縷疔」, 「鹽湯浸引法」, 「土卵膏」, 「千金漏蘆湯」, 「蟾灰」, 「鹽湯沐浴法」, 「背腫」, 「疔腫生手上」, 「治腫奇捷」, 「騎竹馬穴法」, 「諸危惡症」.

본서 「治腫方序」 아래에는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治腫秘方附 禮賓主簿任彦國遺方”라고 하여 아래 내용이 예빈시 주부 임언국의 『치종비방』에서 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전하고 있는 『치종비방』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그곳에는 서문부터 「背腫」까지의 내용이 순서만 달리고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종비방』은 「火疔」, 「鹽湯浸引法」, 「土卵膏」, 「千金漏蘆湯」, 「蟾灰」, 「鹽湯沐浴法」, 「石疔」, 「水疔」, 「麻疔」, 「縷疔」, 「背腫」 순서로 되어 있어 5가지의 종기가 이어져 있지 않다. 『치종방』에서는 5가지 종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뒤 종기 치료 시의 보조요법과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소개하여 목차에 있어 일목요연함을 기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疔腫生手上」부터 「諸危惡症」까지는 모두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나오는 내용이다.

본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책의 마지막 장에 “丁亥八月日金溝縣刊”이라는 간기(刊記)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많은 내용이 『침구경험방』과 동일하며 『침구경험방』이 동아시아 침구학에 지형을 바꿀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간기에 남아 있는 “丁亥”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몹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안위가 서문을 달고 『치종비방』을 간행한 것이 1559년(명종14)이며 이는 『침구경험방』이 간행된 1644년(인조22) 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런데 본서의 간기의 “丁亥”를 1587년(선조20)으로 잡는다면 『치종방』이 『침구경험방』의 내용 일부에 그대로 산입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학사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인하여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丁亥”는 『침구경험방』 간행 이후인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본서의 앞부분, 즉 『치종비방』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



<『治腫方』 마지막 장의 간기
(버클리대학 소장)>

분에서는 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뒷부분 즉, 『침구경험방』과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뜸에 대한 내용이 다수 보인다. 둘째, 경락이라는 용어도 뒷부분에서만 보일 뿐 아니라, 치료 수혈의 명칭 또한 뒷부분에 다양하게 나온다. 셋째, 앞부분의 내용이 끝나는 곳에 「背腫」이 있는데, 뒷부분에 속하는 「治腫奇捷」 내에도 背腫 항목이 다시 보인다. 넷째, 앞부분의 「背腫」 시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대문과 쌍행이 섞여 있으나 별도 표기 없이 제시한다.) “凡痛痒瘡瘍, 皆屬心火, 故灸騎竹馬穴, 則心脉流通, 自至安愈矣. 三日前可灸. 凡腫脉, 宜滑數緊急. 最危者, 蝦遊雀喙脉也.” 이 부분은 『치종비방』에는 보이지 않으며 『침구경험방』에 보이는데, 『침구경험방』 한 곳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한 곳의 내용을 조금씩 떼어서 여러 곳에 붙였다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 산재한 내용을 취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내었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도 본서가 『침구경험방』보다 후대의 책임을 지시한다 할 수 있다. 즉, 본서는 종기치료에 활용할 목적으로 『치종비방』 뒤에 『침구경험방』 중 치종과 관련된 부분을 덧붙여 성책한 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治腫方』의 서지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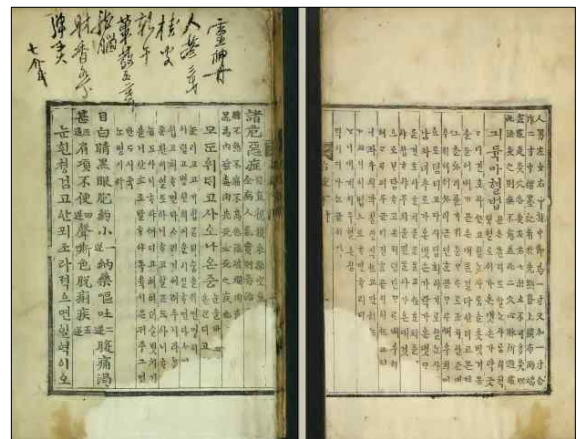
<필사본 『治腫方』 권수(장서각 소장)>

『치중비방』을 『치중방』이라고도 했었기 때문에 이 두 서적은 혼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심지어는 최근 연구자 가운데에서도 『치중방』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치중비방』의 내용을 소개하는 사례도 보인다.

『치중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1년에 있었던 이규근의 연구³⁾로부터이다. 이 연구는 장서각 소장 필사본(K3-380)⁴⁾을 저본으로 이루어졌으며, 『치중방』을 임언국의 저작으로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후 『치중방』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2008년 서지연이 『치중비방』에 관한 연구⁵⁾를 하면서 관련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보인다. 서지연의 연구도 장서각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치중방』에 대하여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치중방』이 『치중비방』全文과 『침구경험방』의 일부내용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것임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두 서적 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치중방』은 국내에 필사본 2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기존 연구자들이 저본으로 활용한 장서각의 필사본이다. 여기에서는 표제가 “治腫方”으로 되어 있고 책의 내용이 『治腫方』의 내용부터 시작하지만, 그 뒤에 『回春

要訣』, 『老人攝養方』, 『小兒方』 등이 덧붙여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 『治腫方』이 전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이 책은 전체 내용에 상관없이 단순히 『治腫方』이 卷首에 있다는 이유로 서명이 이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필사본은 錦里山人에 의해 1871년(고종8)에 세상에 빛을 본 거절의 종합 의서인 『宜彙』⁶⁾ 소재 『治腫方』이다. 두 필사본은 서로 내용이 동일하며 모두 임언국이 남겼다고 되어 있으나, 내용의 뒷부분인 『疔腫生手上』 이하가 『침구경험방』과 내용이 동일하다. 의서의 특성상 필요한 내용을 필사해서 덧붙여두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은 누군가가 『치중비방』 뒤에 『침구경험방』의 일부를 필사하여 전한 것으로만 여겨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해가 붙은 금구현(金溝縣) 간(刊) 목판본 『치중방』이 나왔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 판본이 현재 전하는 필사본의 모태가 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언해가 붙었다는 것은 당시 널리 유포시켜야할 만큼 중기가 큰 문제였음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에 치중청(治腫廳)을 두고 중기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두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목판본 『治腫方』 훼손된 언해 부분 :>

훼손 역제를 위해 배접을 가하였으나 특히

『治腫奇捷』 이후로는 그림처럼 훼손이 심하다>

3) 이규근의 상기 논문 참조.
 4) 원문은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yoksa.aks.ac.kr/>)
 5) 서지연의 상기 논문 참조.
 6) 최근 『宜彙』 전체가 번역되어 5책으로 소개되었다.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상우·박상영·차웅석·윤석희·황재운·노성원, 『국역 의휘 I~V』, 전통의학고전국역총서 24~28,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2. 그리고 『宜彙』의 원문 이미지와 원문텍스트 정보는 ‘한의학고전명저총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jisik.kiomre.kr/>)



<목판본 『治腫方』 내지(버클리대학 소장):
서문 이후로는 언해가 되어 있다>

그리고 본서에는 언해가 붙어 있다. 치종 의서에 대한 언해는 지금껏 발견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치종 의서의 국역 및 연구에 적지 않은 일조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治腫奇捷」 이후로 원문에 훼손이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한문의 경우는 필사본과 대조가 가능하여 복원이 가능하지만 언해문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난점이 있다.

III. 결론

이상 새로 발굴된 버클리대학 소장 아사미문고본 『治腫方』에 대한 소개와 그 의의에 대하여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갈음할까 한다.

1. 『治腫方』은 기존에 알려져 있었듯이 개인의 필사에 의해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 금구현에서 公刊한 서적이었다. 특히 언해를 부기해 둔 것에서 서적의 배포에 상당히 신경을 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치종 관련 서적이 널리 퍼져야 했던 의료사적

이유가 있었음을 나타내어 준다고 할 수 있다.

2. 『치종방』은 『치종비방』의 全文과 『침구경험방』의 내용 일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서적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아사미문고본에는 “丁亥八月日金溝縣刊”이라는 간기가 남아 있는데, 이때 “丁亥”는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침구경험방』 간행 이후임을 알 수 있었다.

3. 언해가 남아있어 번역 등에 활용도가 몹시 높을 수 있으나, 「治腫奇捷」 이후로는 훼손이 심각하다. 특히 한문 부분은 『침구경험방』 등 관련 자료를 통한 교감이 가능하나, 언해 부분은 완전한 복원이 몹시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이규근, 「조선중기 治腫術의 발달-『治腫方』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6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2. 서지연, 『任彦國의 治腫醫學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8.
3. 방성혜, 『外治法の 현대적 응용을 위한 고대 외과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8.
4. 박상영·이선아·권오민·안상우, 「『治腫秘方』 연구 - ‘遺方’의 성격과 의사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4권 1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4.
5. 박상영·안상우, 「『治腫指南』 연구」, 『민족문화』 제32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12.
6. 안상우·김남일·차웅석·오준호·권오민·박상영,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증보판)』,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7. 박상영·권오민·안상영·한창현·안상우, 「任彦國의 『治腫方』 翻譯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2권 4호,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9.
8. 안상우·박상영 譯, 『국역 치종지남·치종비방』,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9.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10. 안상우·박상영·차웅석·윤석희·황재운·노성완, 『국역 의회 I』,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 24,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2.
11. 안상우·박상영·차웅석·윤석희·황재운·노성완, 『국역 의회 II』,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 25,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2. 안상우·박상영·차웅석·윤석희·황재운·노성완, 『국역 의휘 III』,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 26,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2.
13. 안상우·박상영·차웅석·윤석희·황재운·노성완, 『국역 의휘 IV』,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 27,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2.
14. 안상우·박상영·차웅석·윤석희·황재운·노성완, 『국역 의휘 V』,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 28,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2.
15.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